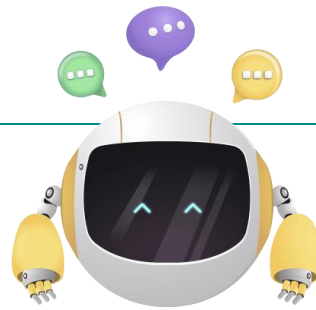


AI 컴퓨팅 수요 가속화

Tech&Stock Weekly | 2026.07.24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알파벳(GOOG.LUS): 구글 클라우드 82% 성장

- 분기 매출 1,198.0억달러 (예상치 1,170.2억달러), YoY 24% 증가.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7.7억달러 (예상치 224.6억달러), YoY 82% 증가. 영업이익 407.7억달러 (예상치 405.5억달러), YoY 30% 증가. 영업이익률은 YoY 2%p 상승한 34.0%. Capex 449.2억달러 (예상치 441.5억달러), YoY 100% 증가.
-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1Q26 63%에서 2Q26 82%로 재가속. GCP와 AI 인프라, 기업용 AI 솔루션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TPU 시스템 판매를 제외해도 성장률이 의미 있게 상승. 구글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88.1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영업이익률도 20.7%에서 35.6%로 확대. 클라우드 수주잔고는 전분기 대비 500억달러 이상 증가한 5,140억달러 기록. 전체 수주잔고의 절반 이상이 향후 24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 신규 고객 확보 속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기존 고객의 실제 사용량도 약정 규모를 50% 이상 웃돌며 전분기보다 추가 확대
- 외부 클라우드 고객뿐 아니라 검색·유튜브·Gemini 등 내부 서비스에서도 컴퓨팅 수요가 강한 상황. 지난 3년간 용량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수요 증가가 공급 확대 속도를 계속 앞지르는 상태. 가용 컴퓨팅의 최우선 배분 대상은 최첨단 AGI 및 Gemini 4 모델 개발. 이후 검색과 유튜브 등 소비자 서비스, Vertex AI와 Gemini Enterprise를 포함한 기업용 서비스 순으로 배분하는 구조
- 2026년 Capex 가이드는 기존 1,800~1,900억달러에서 1,950~2,050억달러로 상향. 상반기 누적 Capex는 806억달러. 연간 가이드스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1,144~1,244억달러, 분기 평균 572~622억달러의 집행이 필요. 이는 2Q26 Capex 449억달러보다 분기 평균 지출이 27~38% 추가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 2분기 Capex는 QoQ로 25.9% 증가했기에, 연말로 갈수록 Capex 증분은 가속화. 투자 구성은 서버 약 60%,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장비 약 40%. 2027년 Capex도 2026년보다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전망.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장기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에서 확인되는 컴퓨팅 수요가 1년 전보다 강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 자체 용량이 공급될 때까지 3분기부터 외부 사업자의 컴퓨팅 용량 사용을 확대할 계획. 대형 클라우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단기 브리지 전략이지만 자체 인프라보다 비용이 높아 구글 클라우드 마진에 단기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수개월 동안 고비용 외부 용량을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자체 용량으로 전환하면 다년 계약 전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냄. 외부 용량 공급업체와 계약 규모는 미공개

메타(META.US): 블랙록, 메타 1GW 데이터센터에 120억달러 조달

- 블랙록이 메타의 텍사스 엘패소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달러 이상의 채권 발행 추진 중. 사업 법인의 공식 명칭은 Project Sopaipilla Holdings. 블랙록이 인수한 펀드인 GIP와 HPS가 운용하는 펀드가 합작법인 지분 80%, 메타가 나머지 20% 보유
- 메타가 데이터센터 캠퍼스 건설을 담당하며 2028년 가동 목표. 전체 전력 규모는 약 1GW. 이번 거래의 핵심은 블랙록이 125억달러에 인수한 GIP와 120억달러에 인수한 HPS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입했다는 점. 총 245억달러 규모 M&A를 통해 확보한 역량이 실제 거래로 연결되는 첫 대표 사례
- 엘패소 프로젝트는 메타의 루이지애나 Hyperion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구조. Hyperion은 블루아울이 지분 80%, 메타가 20%를 보유하고 합작법인이 270억달러의 프로젝트 부채를 조달한 거래. 이 구조를 통해 메타는 프로젝트 부채를 연결대차대조표 밖에 두면서 데이터센터의 일상적인 운영 권한을 유지. 대규모 AI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외부 장기자본과 분담하는 방식

앤스로픽(비상장): 메타와 2년간 최대 100억달러 컴퓨팅 임대 협상

- 앤스로픽이 메타의 AI 컴퓨팅 용량을 임차하기 위한 초기 협상 진행 중. 잠재적인 계약 규모는 2년간 최대 100억달러. 앤스로픽이 6월 먼저 거래를 제안했으며 메타가 검토 중인 단계. 계약이 성사되면 앤스로픽이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고 양측 모두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구조
- 전체 계약 금액을 24개월에 균등 배분하면 월평균 약 4억1,700만달러,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 다만 공급 전력과 GPU 수량, 반도체 종류 및 데이터센터 위치가 공개되지 않아 GW당 가격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 양사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조건도 변경 가능

오픈AI(비상장): 2030년까지 자체 컴퓨팅 지출 7,500억달러로 상향

- 오픈AI의 2030년까지 누적 컴퓨팅·데이터센터 지출 전망이 약 7,500억 달러로 상향. 올해 초 예상했던 약 6,000억달러보다 25% 증가한 규모. 7,500억달러는 이미 집행됐거나 전액 계약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장기 지출 전망치. 외부 클라우드 사용료와 자체 데이터센터 개발비를 포괄하는 개념
- Stargate의 5,000억달러 투자 구상에 별도로 7,500억달러를 더한다는 의미도 아님. Stargate는 여러 사업자가 조달·투자하는 인프라 구축 계획이고, 7,500억달러는 오픈AI가 부담할 전체 컴퓨팅 비용 전망
- 첫 신규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에 200억달러 규모의 카멜리아 데이터센터 캠퍼스 개발 추진. 오픈AI가 설계와 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첫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캠퍼스 면적은 사바나 북서쪽 약 1,400에이커. 조지아파워와 3.2GW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전력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 실제 첫 GPU 가동 시점과 단계별 데이터센터 준공 일정은 미공개
- 오픈AI는 xAI에서 Colossus 데이터센터 건설을 이끌었던 브렌트 메이요도 영입. 자체 데이터센터의 설계·전력 확보·GPU 설치 기간을 단축하려는 인프라 조직 강화

AI/플랫폼

인텔(INTC.US): AI향 CPU 공급 부족 지속

- 2분기 탑라인 모두 예상치 상회. 매출액 161.3억 달러(예상치 144.2억 달러)로 YoY +25.4%, CCPG(소비자향) 매출액 88.8억 달러(예상치 78.9억 달러), YoY +13%, QoQ +15%. DCAI 매출액 62.6억 달러(예상치 53.7억 달러), YoY +59%, QoQ +24%. 인텔 파운드리 매출액 57.7억 달러(예상치 55.5억 달러), YoY +31%, QoQ +6%
- 조정 매출총이익률 41.8% (예상치 38.8%), 조정 EPS 0.42달러(예상치 0.21달러)로 수익성도 예상치 모두 상회
- 3분기 매출 가이드스 158억~168억 달러, 중간값 163억 달러(예상치 151억 달러), 조정 EPS 가이드스 0.38달러(예상치 0.27달러)로 예상치 상회
- CCPG 매출의 예상치 상회는 출하량 증가보다 고사양 제품 믹스와 가격 인상 효과가 주된 요인. AI PC 매출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하며 전체 클라이언트 매출의 약 3분의 2까지 확대
- DCAI 매출은 하이퍼스케일과 기업 고객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영업이익은 25억 달러로 전분기대비 약 10억 달러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40% 기록. Xeon 6는 인텔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서버 제품 중 하나로 평가
- AI 인프라가 학습에서 추론과 에이전트형 AI로 이동하면서 범용 서버 CPU 탑재 밀도가 상승하는 흐름. CPU와 GPU의 출하량 비율은 거의 1대1에 접근했으며 향후 CPU 쪽으로 기술 가능성까지 제시. 서버 CPU 산업 출하량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두 자릿수 성장 예상. 관련 수요 모멘텀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핵심 제약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능력. 선단 공정 웨이퍼와 메모리, 기판, T-glass,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 2분기 웨이퍼 생산량이 내부 계획을 초과했음에도 고객 주문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서버 공급 증가는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집중될 예정이나 4분기에도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그에따라 PC 생산 물량 일부를 데이터센터 CPU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2026년 PC 소비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으로 전년대비 10%대 초반 감소 예상
- 인텔 파운드리의 18A 생산량은 전분기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내부 목표를 약 25% 상회. 수율 개선과 생산주기 단축, 가동률 상승으로 파운드리 영업손실도 전분기보다 3.5억 달러 축소된 21억 달러 기록. 주력 Panther Lake 제품의 생산원가는 연초 이후 약 50% 하락. 올해 남은 기간 추가로 약 20% 절감하고 2027년에도 의미 있는 원가 하락을 추진할 계획. 18A-P는 위험생산에 진입했으며 연말 이전 준비 완료 예정. 기존 18A 대비 약 5%의 성능 개선을 제시. 14A는 10월 양산 직전 버전인 PDK 0.9 제공을 목표로 진행 중. 2027년 하반기 위험생산과 2028년 대량생산 계획을 확정한 상태. 14A 외부 고객의 관심과 설계 검토는 확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규 고객명과 수주 규모는 공개하지 않음. PDK와 실제 수율 데이터가 제공된 이후 고객의 제품 설계와 필요 생산능력 협의가 구체화되는 단계
- 2026년 Capex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7년에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예상. 2026년 장비 투자는 전년대비 40% 확대되며 Intel 3와 18A, 18A-P에 집중될 계획. 투자 대부분은 신규 건물보다 생산 장비에 배정. 첨단 패키징에도 투자하지만 절대 금액은 전공정 생산능력 확충에 더 크게 배정될 예정

알파벳(GOOG.LUS): 구글 클라우드 82% 성장

- 2분기 매출 1,198.0억달러(예상치 1,170.2억달러), YoY 24% 증가.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7.7억달러(예상치 224.6억달러), YoY 82% 증가. 영업이익 407.7억달러(예상치 405.5억달러), YoY 30% 증가. 영업이익률은 YoY 2%p 상승한 34.0%. Capex 449.2억달러(예상치 441.5억달러), YoY 100% 증가.
-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1Q26 63%에서 2Q26 82%로 재가속. GCP와 AI 인프라, 기업용 AI 솔루션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TPU 시스템 판매를 제외해도 성장률이 의미 있게 상승. 구글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88.1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영업이익률도 20.7%에서 35.6%로 확대. 클라우드 수주잔고는 전분기 대비 500억달러 이상 증가한 5,140억달러 기록. 전체 수주잔고의 절반 이상이 향후 24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 신규 고객 확보 속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기존 고객의 실제 사용량도 약정 규모를 50% 이상 웃돌며 전분기보다 추가 확대
- 외부 클라우드 고객뿐 아니라 검색·유튜브·Gemini 등 내부 서비스에서도 컴퓨팅 수요가 강한 상황. 지난 3년간 용량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수요 증가가 공급 확대 속도를 계속 앞지르는 상태. 가용 컴퓨팅의 최우선 배분 대상은 최첨단 AGI 및 Gemini 4 모델 개발. 이후 검색과 유튜브 등 소비자 서비스, Vertex AI와 Gemini Enterprise를 포함한 기업용 서비스 순으로 배분하는 구조
- 2026년 Capex 가이드스는 기존 1,800~1,900억달러에서 1,950~2,050억달러로 상향. 상반기 누적 Capex는 806억달러. 연간 가이드스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1,144~1,244억달러, 분기 평균 572~622억달러의 집행이 필요. 이는 2Q26 Capex 449억달러보다 분기 평균 지출이 27~38% 추가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 2분기 Capex는 QoQ로 25.9% 증가했기에, 연말로 갈수록 Capex 증분은 가속화. 투자 구성은 서버 약 60%,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장비 약 40%. 2027년 Capex도 2026년보다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전망.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장기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에서 확인되는 컴퓨팅 수요가 1년 전보다 강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 자체 용량이 공급될 때까지 3분기부터 외부 사업자의 컴퓨팅 용량 사용을 확대할 계획. 대형 클라우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단기 브리지 전략이지만 자체 인프라보다 비용이 높아 구글 클라우드 마진에 단기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수개월 동안 고비용 외부 용량을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자체 용량으로 전환하면 다년 계약 전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냄. 외부 용량 공급업체와 계약 규모는 미공개

아마존(AMZN.US): AGI 조직 일부 감원

- 아마존이 AGI 조직 내 일부 직책 감원 진행. 전체 감원 규모와 구체적인 대상 부문은 미공개.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여전히 핵심 사업으로 유지. 다만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치가 큰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적 인력 조정. 아마존은 자체 Nova 기반 모델과 자율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통해 AGI 경쟁에 참여 중. 아마존은 2025년 12월 AGI 조직을 피터 디센티스 수석부사장 산하로 통합. AI 모델과 자체 반도체, 양자컴퓨팅을 하나의 상위 기술 조직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 당시 AGI 조직을 이끌던 로히트 프라사드가 2025년 말 퇴사. 브라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Nova Act 개발을 주도했던 AGI Lab 책임자 데이비드 루안도 2026년 2월 퇴사. 이번 감원은 두 핵심 책임자의 이탈과 조직 통합 이후 진행된 후속 구조조정. 기존 연구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모델과 제품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
- 2026년 설비투자 계획도 약 2,000억 달러로 유지 중이며 상당 부분이 AWS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배정. AGI 인력 감원이 AI 인프라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아마존은 2025년 10월 약 1만4,000명, 2026년 1월 약 1만6,000명의 사무직 감원을 발표. 이번 AGI 감원은 대규모 전사 구조조정 이후 이어지는 소규모 조직별 인력 조정의 연장선

메타(META.US): 블랙록, 메타 1GW 데이터센터에 120억달러 조달

- 블랙록이 메타의 텍사스 엘패소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달러 이상의 채권 발행 추진 중. 사업 법인의 공식 명칭은 Project Sopaipilla Holdings. 블랙록이 인수한 펀드인 GIP와 HPS가 운용하는 펀드가 합작법인 지분 80%, 메타가 나머지 20% 보유
- 메타가 데이터센터 캠퍼스 건설을 담당하며 2028년 가동 목표. 전체 전력 규모는 약 1GW. 이번 거래의 핵심은 블랙록이 125억달러에 인수한 GIP와 120억달러에 인수한 HPS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입했다는 점. 총 245억달러 규모 M&A를 통해 확보한 역량이 실제 거래로 연결되는 첫 대표 사례
- 엘패소 프로젝트는 메타의 루이지애나 Hyperion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구조. Hyperion은 블루아울이 지분 80%, 메타가 20%를 보유하고 합작법인이 270억달러의 프로젝트 부채를 조달한 거래. 이 구조를 통해 메타는 프로젝트 부채를 연결대차대조표 밖에 두면서 데이터센터의 일상적인 운영 권한을 유지. 대규모 AI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외부 장기자본과 분담하는 방식

스페이스X(SPCX.US): 미 국방부와 수십억달러 AI 컴퓨팅 공급 협상

-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에 AI 모델 구동용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을 공급하는 방안 협상 중. 계약 금액은 최대 수십억달러 규모로 논의되는 상황. 미 국방부는 정보기관과 군사 작전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확보 추진 중. 2027 회계연도에는 차세대 AI 슈퍼컴퓨터와 보안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AI Arsenal 예산으로 295억달러 요청. 스페이스X는 이미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AW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함께 국방부의 기밀망용 AI 공급사로 선정된 상태. 기존 계약이 AI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IL6-IL7 기밀망에 배치하는 내용이라면, 이번 협상은 GPU와 데이터센터 자체를 제공하는 인프라 계약에 해당
- 스페이스X는 코어워브 등 네오클라우드보다 낮은 가격에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는 방안 검토 중. xAI 인수로 확보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외부 고객에게 임대해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확장하려는 전략

TSMC(TSM.US): 미국 투자 2,650억달러로 확대

- TSMC가 미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1,000억달러 추가 투입 예정. 기존 계획을 포함한 미국 투자 약정은 총 2,650억달러로 확대. 추가 자금은 애리조나의 전공정 팹과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에 활용. 기존 6개 팹에 최소 4개를 추가해 장기적으로 팹 10개와 첨단 패키징 시설 2개,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할 계획
- 애리조나 1단계 4nm 팹은 이미 가동 중. 생산량은 향후 수개 분기에 걸쳐 지속 확대될 전망. TSMC는 2026년 설비투자 가이드스를 기존 520억~560억달러에서 600억~640억달러로 상향. 첨단공정과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정
- 다만 미국 팹 건설비는 대만 대비 4~5배 높은 수준. 해외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희석 효과는 초기 2~3%p에서 장기적으로 3~4%p까지 확대될 가능성. 건설 인력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도 증설 속도를 제한하는 변수. 실제 추가 1,000억달러의 집행 일정은 고객 수요와 현지 기반시설 확보 속도에 맞춰 결정될 전망

AMD(AMD.US): Helios·MI455X 공개

- AMD가 Advancing AI 2026에서 데이터센터부터 엣지·로봇까지 포괄하는 신규 AI 제품군 공개. 고성능·적응형 컴퓨팅 시장이 연평균 약 40% 성장해 2030년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2조달러는 AMD의 매출 목표가 아니라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이 가운데 AI 가속기 시장은 1조4,000억달러, 서버 CPU 시장은 2,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월간 AI 토큰 사용량은 35경개를 넘어 2년 만에 약 160배 증가. 학습용 컴퓨팅 수요도 매년 약 5배씩 늘고 있지만, 2026년에는 추론이 전체 AI 컴퓨팅의 약 60%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학습 수요를 추월한 상태로 추정
- 핵심 제품은 AMD 최초의 완전 통합형 랙 시스템 Helios. 한 랙에 Instinct MI455X GPU 72개와 6세대 EPYC Venice CPU 18개,

Pensando 네트워크와 ROCm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구성. Helios는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2026년 3분기 말 출하 개시 후 4분기부터 공급 확대 예정. 엔비디아 Vera Rubin NVL72와 직접 경쟁하는 랙 단위 AI 인프라로 포지셔닝

- MI455X는 TSMC 2나노·3나노 공정을 함께 활용한 3,200억개 트랜지스터 기반 칩. 12개의 연산·입출력 칩렛과 432GB HBM4를 탑재하며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약 20TB 수준. Helios는 경쟁 시스템 대비 연산 성능 15%, HBM4 용량과 대역폭 50%, 스케일아웃 네트워크 대역폭 50% 우위를 제시. 추론 토큰당 비용도 최대 30% 낮다는 자체 측정 결과 공개
- 오픈시는 이미 Helios 랙을 확보해 GPT 계열 워크로드와 소프트웨어-네트워크 최적화를 진행 중. 2026년 말부터 대규모 배치를 시작하고 2027년 동안 도입 속도를 높일 계획. 앤스로픽은 2027년 상반기 첫 1GW를 시작으로 최대 2GW 규모의 Helios 인프라 도입 예정. AMD도 조건부로 최대 50억달러를 앤스로픽에 투자하며 Claude를 GPU 워크로드 최적화와 ROCm 개발에 활용할 계획.
- Cerebras와는 추론의 프리필과 디코드 단계를 서로 다른 반도체로 처리하는 분리형 추론 구조 구축. Helios가 연산량이 많은 프리필을 담당하고 Cerebras WSE가 메모리 대역폭과 낮은 지연시간이 중요한 디코드를 담당하는 방식. 결합 시스템은 낮은 지연시간을 유지하면서 기존 대비 약 5배의 처리량을 목표로 하며 2026년 하반기 Cerebras Cloud에서 우선 제공 예정. 엔비디아가 Groq를 디코드 가속에 활용하는 구조와 유사한 이기종 추론 전략
- 향후 로드맵은 2027년 MI500과 Helios 500, 2028년 MI600과 Helios 600으로 연결. CPU는 2028년 Zen 7 기반 Florence-Ferrara-Fidenza, 2030년 Zen 8 기반 Ravenna 출시 계획

앤스로픽(비상장): 메타와 2년간 최대 100억달러 컴퓨팅 임대 협상

- 앤스로픽이 메타의 AI 컴퓨팅 용량을 임차하기 위한 초기 협상 진행 중. 잠재적인 계약 규모는 2년간 최대 100억달러. 앤스로픽이 6월 먼저 거래를 제안했으며 메타가 검토 중인 단계. 계약이 성사되면 앤스로픽이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고 양측 모두 초기 종료할 수 있는 구조
- 전체 계약 금액을 24개월에 균등 배분하면 월평균 약 4억1,700만달러,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 다만 공급 전력과 GPU 수량, 반도체 종류 및 데이터센터 위치가 공개되지 않아 GW당 가격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 양사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조건도 변경 가능

오픈AI(비상장): 2030년까지 자체 컴퓨팅 지출 7,500억달러로 상향

- 오픈AI의 2030년까지 누적 컴퓨팅·데이터센터 지출 전망이 약 7,500억 달러로 상향. 올해 초 예상했던 약 6,000억달러보다 25% 증가한 규모. 7,500억달러는 이미 집행됐거나 전액 계약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장기 지출 전망치. 외부 클라우드 사용료와 자체 데이터센터 개발비를 포괄하는 개념
- Stargate의 5,000억달러 투자 구상에 별도로 7,500억달러를 더한다는 의미도 아님. Stargate는 여러 사업자가 조달·투자하는 인프라 구축 계획이고, 7,500억달러는 오픈AI가 부담할 전체 컴퓨팅 비용 전망
- 첫 신규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에팍엄 카운티에 200억달러 규모의 카멜리아 데이터센터 캠퍼스 개발 추진. 오픈AI가 설계와 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첫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캠퍼스 면적은 사바나 북서쪽 약 1,400에이커. 조지아파워와 3.2GW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전력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 실제 첫 CPU 가동 시점과 단계별 데이터센터 준공 일정은 미공개
- 오픈AI는 xAI에서 Colossus 데이터센터 건설을 이끌었던 브렌트 메이요도 영입. 자체 데이터센터의 설계·전력 확보·GPU 설치 기간을 단축하려는 인프라 조직 강화

우주/로봇

스페이스X(SPCX.US): Starship 13차 시험 하루 연기

- SpaceX가 7월 23일로 예정했던 Starship 13차 비행시험을 기상 문제로 하루 연기. 새로운 발사 목표는 미국 중부시간 7월 24일 오후 5시45분, 한국시간 7월 25일 오전 7시45분으로 조정. 구름으로 인해 상승 과정에서 열차폐막을 선명하게 촬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연기 사유. 이전과 비교해 더 높은 동압을 받는 조건에서 열차폐 타일의 상태를 지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핵심 목표 중 하나
- 이번 비행은 Starship의 13번째 통합 시험이자 V3 기체의 두 번째 비행. 기체는 33개 Raptor 엔진을 장착한 Super Heavy Booster 20과 상단부 Ship 40으로 구성. 두 기체 모두 이번 시험에서 재사용하지 않고 각각 멕시코만과 인도양에 착수시킬 계획
- 지난 7월 16일 첫 발사 시도에서는 점화 직후 33개 엔진 중 4개가 작동하지 않음. SpaceX는 이후 최소 2개의 Raptor 엔진을 교체하고 추가 점검을 진행.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주입하는 시험까지 완료한 뒤 Booster 20과 Ship 40을 다시 결합
- 가장 중요한 탑재체 시험은 실제 양산형 Starlink V3 위성 20기의 배치. 이전 시험에서 사용한 모형 위성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를 펼치고 기존 Starlink 위성과 고용량 레이저 통신을 시도할 생산 위성. 다만 위성들은 정식 궤도에 투입되지 않고 Starship과 동일한 준궤도 경로를 비행. 배치 약 20분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하도록 설계된 시험용 임무

테슬라(TSLA.US): 올랜도·탬파 로보택시 진출 발표

- 테슬라가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탬파의 로보택시 서비스 구역 공개. 다만 투입 차량 수와 일반 고객의 즉시 호출 가능 여부는 미공개. 실제 무인 차량 규모는 기존 계획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 5월 기준 오스틴 29대, 댈러스 5대, 휴스턴 6대였으나 현재는 각각 17대, 4대, 0대로 감소.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음. 이후에는 2025년 말 오스틴에서만 500대 이상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도 제시.
- 테슬라는 신규 도시에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을 탑승시킨 상태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식 사용.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요원을 조수석으로 옮기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안전요원 없는 차량도 필요할 경우 원격조작 인력이 개입하는 구조. 최근에는 원격조작 중이던 로보택시가 나무 그루터기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기도 함

어질리티 로보틱스(비상장): 테슬라 공장 인근에 로봇 훈련시설 신설

-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6만제곱피트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시설 개설. 테슬라가 Optimus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
- 신규 시설은 고객사의 제조·물류 현장을 재현하고 Digit에 새로운 작업을 학습시키는 용도. 실제 배치 전 작업 동선과 안전요건, 창고관리시스템 연동을 검증하는 거점. 현재 30개 이상의 기업과 Digit 도입 협의 진행 중. 확보한 로봇 계약 주문은 총 3억달러 규모. Digit은 이미 아마존, CXO, 세플러, 도요타자동차 캐나다의 제조·물류 현장에서 수익을 창출 중. 상자와 보관함을 운반하는 반복 작업이 현재 주요 용도. 구체적인 생산 및 배치 대수는 미공개. 외부에서 추정하는 시범·상업 배치 규모는 수십대 수준
- 어질리티는 생성형 AI를 모든 로봇 제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 채택. 균형 유지와 충돌 방지 등 안전 기능은 생성형 AI와 분리된 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운용. 생성형 AI는 작업 종류를 확장하고 새로운 동작을 학습시키는 영역에 활용. 사람이 개별 작업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역할
- 올가을에는 차세대 Digit 5 공개 예정. 사람을 감지할 수 있어 기존처럼 로봇 전용 격리구역에서만 운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으로 개발 중. 다만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에는 당분간 진출하지 않을 계획. 현재 기술의 안전성을 고려해 제조와 물류의 통제된 환경에 집중하는 전략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GE 버노바(GEV.US): 가스터빈 연간 생산능력은 2030년까지 30GW

- 매출액 111억 달러(YoY +22%)로 컨센(108억)을 소폭 상회했으나 EPS 2.47달러로 컨센(3.07)을 하회
- 풍력 EBITDA가 육상풍력 납품 감소와 해상풍력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손실폭을 확대했기 때문
- 총 수주잔고는 1,760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13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장비 부문에서 Prolec 수주잔고를 포함하며 77% 증가한 데서 기인
- 장비 매출이 서비스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와 가격 인상, 생산성 향상으로 조정 EBITDA 마진은 11.3%(+280bp)로 증가
- 가스터빈 연간 20GW 생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8년까지 24GW, 2030년까지 30GW를 목표
- 올해 말까지 125GW 계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대부분의 물량이 매진될 전망이며 2031년(30GW)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말까지 판매될 계획
- SST는 지난주 실내용 5MW급 프로토타입의 완공된 모습을 공개했으며 올해 말 첫번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시제품을 납품될 예정. 동시에 실외용 6MW급 SST 개발에도 착수했다. 3분기 전력 부문 매출 38~4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가격 증가로 EBITDA 마진도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력 부문 성장에 따라 연간 매출 가이드는 기존 대비 10억 달러 상향조정된 455억~465억 달러, EBITDA 마진 가이드는 12~14%를 유지
- 단기적으로는 MV-UPS, 에너지관리솔루션과 SST, 장기적으로는 SOFC와 SMR에서의 프리미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SST 본격 수주는 CY27년 이후

같은 문제, 다른 해결책 (뉴욕과 PJM)

-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0MW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최대 1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현재 데이터센터 크기 중간값이 175MW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
- 다만 뉴욕주의 데이터센터는 약 134개로 버지니아주(639개)와 텍사스주(506개) 대비 현저히 적은 편.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도 텍사스와 버지니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의 영향은 제한적
- 다만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경합지에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중요한 안건이 될 가능성 높아질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미래 일자리의 원동력'으로 표현하며 호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
- 같은 날 발표된 PJM의 2028/29 ('28년 6월~'29년 5월) 용량경매(BRA) 가격은 \$325.00/MW-day (YoY -3%)
- FERC가 이미 4월 28일에 이번 2028/29 용량경매에 대한 상한선(\$325)과 하한선(\$175)을 발표했으며 상하한선 제도가 도입되었던 2026/27 경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낙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가격은 예상에 부합
- 데이터센터발 전력 요금 상승 우려라는 같은 문제에 대해 **뉴욕주는 신규 허가를 멈추고 규제부터 만드는 방식**을 택한 반면 **PJM은 Connect and Manage 방식(일단 연결하되 위기 시 신규 데이터센터부터 차단)**을 채택하며 전혀 다른 방향성
-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같은 다른 주에서는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축소
- 메인주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모라토리엄을 추진했던 바 있으나 최종 서명 단계에서 거부된 점, 데이터센터 최대 유치 주에서 모라토리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뉴욕과 같이 극단적인 전면 금지가 표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 높아
- 보편적인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1) 무조건적 유치가 아닌 조건부 유치, 2) 조건의 핵심은 자체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7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